



하늘의 뜻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정관수술을 많이 하다보니 간혹 다시 재개통이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영구피임을 할 목적으로 정관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 임신이 되는 것이다.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여느냐는 각 부부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만일 그동안 아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대단히 기뻐할 일이다.

얼마 전 아이 한명을 낳고 정관수술을 하였던 분이 부인이 임신이 되었다며 찾아왔다. 5년 전에 아이 하나로 만족하자며 정관수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 평소에 외로워하는 것 같아 늘 안스러웠다. 부인과 의논 끝에 아이 하나를 더 가져야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옛날에 정관수술을 할 당시에 아이 하나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한다. 정관복원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어서 미루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부인이 생리가 없어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인이 더 이상 아이 키우는 일에 진저리 치는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아이를 낳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으로 부인이나 남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임신이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이며 결코 쉽지 않다. 간단하게는 고환이나 난소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임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나는 과정과 서로 만나 아이가 되는 과정은 볼수록 신비하기 짝이 없다. 정자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두 달 반이란 기간을 거치면서 숙성이 된다. 숙성되고 나오는 동안 부고환이나 주변 세력들의 견제도 또한 만만치 않다.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고 사정을 하여야 한다. 여성은 필요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남성의 고환은 끊임없이 정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자를 만드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한 번 사정할 때 5억 마리의 정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정자들 중에 정작 임신에 간택이 되는 것은 한 마리밖에 없다. 결혼을 위해서 수많은 남녀들이 만남이 있듯이 5억 마리의 정자들은 서로 선택이 되기 위해 경쟁을 벌린다.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치열하다고 하겠다.

종족의 번식에 대하여 자연의 선택은 까다롭다.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임신을 원한다고 누구나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전전한다. 본병원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찾아오는 남성들이 많이 늘었다. 반면에 누구는 성관계만 있었다고 하면 임신이 된다. 심지어는 정관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결되어 임신을 한다. 정관수술은 정자가 나가는 길을 차단시켜 주는 영구피임수술방법이다. 비교적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수술로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술 받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년이 넘도록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수술해왔다.

문제는 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던 임신으로 곤혹을 치룬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10년이 넘어서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정관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자르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삶은 어쩌면 종족 번식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조물주는 종족 번식에 대한 배려로서 조식이 손상을 당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정관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상대를 찾아 연결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다시 아이를 갖고자 정관복원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임신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임신이란 조물주가 결정하며 각자의 운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의학이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임신과 불임은 오묘한 세계이다. 신의 뜻을 알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라 하겠다. ㉞